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는가?

고통 당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는가? 오늘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 퇴근해서 집에 온다. 그리고 간다. 어디로?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것들을 먹기 위해 냉장고로? 절친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당신을 괴롭힌 직장 상사를 잘근잘근 씹어주기 위해 전화기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소설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포르노로? 당신은 정서적으로 구조받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어려울 때의 도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시 46:1,2).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이 도망치기 가장 좋은 장소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친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해준다. 우리가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가치관의 지형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장로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 가운데 그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느끼는 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다. 고통스러웠던 일들과 역경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이었다. 하나님의 품이 도망치기 가장 좋은 장소라는 의미이다. 한두 번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이 떠올랐지만 고통이라고까지 할 것들은 아니었다. 결국 정말 고통스러웠던 적은 없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장로님 한 분이 내 대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대체 이분들이 내게 뭘 기대하는 거지?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잃고 와야 한다는 것인가?' 그 장로님은 나의 대답에 대해 계속 언급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잘 알려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일을 마치고 돌아와, 낮잠을 자고 있는 내 딸 모건을 깨우러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모건은 두 살이었다. 그런데 모건의 침대 옆에 있던 소나무 옷장이 침대 위로 넘어져 있고 아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허둥지둥 옷장을 치우고 보니 딸아이의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모건은 숨을 쉬면서도 신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경에 손상을 입은 것 같았다. 모건이 엑스레이를 찍는 동안 나는 어둑한 병원 홀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건은 깨어났지만 걷지 못했다.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건이 차츰 좋아졌다. 물론 지금 모건은 정상이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그때 장로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배워야 했고, 인생이 고단해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했다. 가장 깊은 두려움을 느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3권 50호 2017년 12월 10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박태열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서병일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346장 (새찬211장) 1,2,3절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사회자

성경봉독 (Scripture) 마태복음 22:35-38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함찬양대

간증 (Testimony)

점순 Davis 집사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사랑의 삶을 이루는 세가지 사이클

네번째: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주는것 1

파송찬양 (Closing Hymn) 88장(새찬88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EM Worship / 1:15p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류영걸 권사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2월 24일(일) **성탄주일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학교, EM과 함께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 12월 24일(일)에 **크리스마스이브 예배는 없습니다.**
- ◆ 12월 31일(일) **송구영신예배**는 저녁 8시에 모여서 떡국을 먹으면서 윗놀이를 하고 10시 30분에 속회별 장기자랑을 시작합니다.
- ◆ 1월 2일(화)부터 7일(일) 새벽 5시 30분에 **신년특별새벽예배**가 있습니다. 남선교회에서 간단한 아침식사 준비합니다.
- ◆ 1월 7일(일) **새해 첫 주일**에는 한복있으신 분들은 한복을 입고오세요. 예배후 바로 **가정별로 신년축복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 ◆ 1월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1박 2일로 **제직신년하례회**가 평화기도원에서 있습니다.
- ◆ 친교는 채정원집사님께서, 제단헌화는 장경숙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교우소식]

- ◆ 류금석집사, 조동숙집사 따님 류채린양이 내년 1월 6일(토) 오후 6시에 Cliffside Park에 있는 Palisadium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류금석 집사께 말씀해주세요.

부서별 소식

[목회협조위원회]

- ◆ 오늘 친교후에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부]

- ◆ 내년 1월부터 협력파송 선교사로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헌금봉투에 "문열림 주은혜 선교사 가정" 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월 중 모임 / 행사

- 12월 24일(일) 11:00am 성탄주일연합예배
- 12월 31일(일) 8:00pm 떡국와 윗놀이, 10:30pm 속회별 장기자랑 및 송구영신예배
- 1월 2일(화)-7일(일) 5:30am 신년특별새벽예배
- 1월 7일(일) 11:00am 가정별 신년축복기도
- 1월 13일(토)-14일(일) 제직신년하례회

지난 주 일 통계

헌금총액	\$4,024	출석총인원	42
십일조	\$930	KM 본예배	37
주정(주일)	\$715	주일학교	4
감사헌금	\$310	EM 예배	1
선교헌금	\$		
주일학교	\$49		
EM	\$20		
교회벤기금	\$2,000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12월 친 교 / 헌 화

3	서낙선권사 / 김중열성도
10	채정원집사 / 장경숙집사
17	김인자권사 / 서낙선권사
24	여선교회 / 여선교회
31	이영화집사 / 최영숙권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이원희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